

‘아픔의 현장’ 무안공항으로 다시 돌아가는 유가족들

장례 절차 마치고 복귀...블랙박스 자료 추출 시작따라 진상규명 요구 내일 유가족 총회서 대응 계획 논의...정부, 쉘터 재정비·모포 등 준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장례 절차를 마치고 사고 현장인 무안공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참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에서 자료 추출이 시작됨에 따라 사고현장으로 복귀한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무합동통합지원센터는 9일 무안공항 2층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무안공항으로 복귀하는 유가족을 위해 쉘터(쉼터형 재난구호 임시시설) 재정비와 난방조절 등 민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공항 체류를 원하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공항 2층 게이트 앞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 4개동이 배정돼 사용 중이다. 유가족 임시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포대와 무안공항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되고 있다.

정부는 무안공항 체류나 방문 유가족을 위해 ‘쉘터’ 방역을 모두 마쳤고 모포 300개와 방한키트를 준비했다. 환파에 대비해 무안공항 난방온도도 조정했고 경찰은 24시간 순찰체계를 구축했다.

1층 편의점에서는 주류 판매가 제한되고 유가족 식사는 공항 1층 식당과 제주항공에서 지원하는 밥차가 담당하고 있다.

유가족은 11일 무안공항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기존 유가족대표단 재구성

향후 대응 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도 유가족들의 총회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사고원인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사고원인 조사나 정부의 발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장례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고원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과정을 유가족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 미국으로 가져간 사고기 블랙박스 중 연결장치 일부 유실된 비행기록장치(FDR)에서 자료 추출 작업이 이날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완료된 비행기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녹취록에 대한 공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CVR 녹취록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사조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전후 사고기 내의 음성과 관제탑과 교신 내용이 담겨 있는 CVR 녹취록이 공개되면 객관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눈 덮인 광주 ‘흑백 세상’

광주지역 적설량이 8cm를 기록한 9일 시민들이 눈발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을 걷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 오전까지 3~8cm의 눈이 더 내리고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비방 누리꾼 추가 검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가 경찰에 추가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기 기장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무심결에 게시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까지 참사 희생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글 167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재한 B씨가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본 시민단체들, 전범기업 사과 촉구 항의집회 확대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9일 일제강점기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11시 30분 도쿄 미쓰비시상사 앞을 시작으로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들의 사죄와 배상을 요하는 ‘마루노우치 행동’ 1차 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나고야소송지원회)’와 ‘한국 원폭 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회’,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회’ 등이 참여한다.

기중에는 나고야소송지원회가 매주 금요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미쓰비시 앞에서 금요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코로나19 유행의 여파에 한달에 한 차례로 집회를 축소했다.

하지만 올해 제543차 금요행동부터는 ‘한국 원폭 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회’,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회’가 추가로 참여하며 ‘마루노우치 행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루노우치 행동’은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거리 중심에 미쓰비시상사,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본사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명칭이다. 이들 기업은 2018년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았다. 다카하시 마코토(高橋 眞) 나고야소송지원회 공동대표는 “판결금을 수용한 원고들도 일부 있지만, 피고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사죄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법원 “반성하는 모습 없다” 꾸짖어

순천 도심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0시 40분께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새벽 0시 50분께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돌아다닌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살인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박씨가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1시간 여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지를徘徊하며 추가 범행대상을 모색한 사실을 들어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박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한 결과 범행직전 흥기를 활용한 사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발적 살인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 피해자에 대

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검찰이 추가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재판 내내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공포·불안감을 조장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박씨를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의원에겐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9일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금지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수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한 글과 그래프를 결합해 유권자에게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의원의 위법성 인식

이 적었고, 경선 전후 경위를 종합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고 재판 직후 “반성하고 더 열심히 활동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 체제를 가동한 상황에서 지난달 21일 출국해 1주일간 미국에 체류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사과를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